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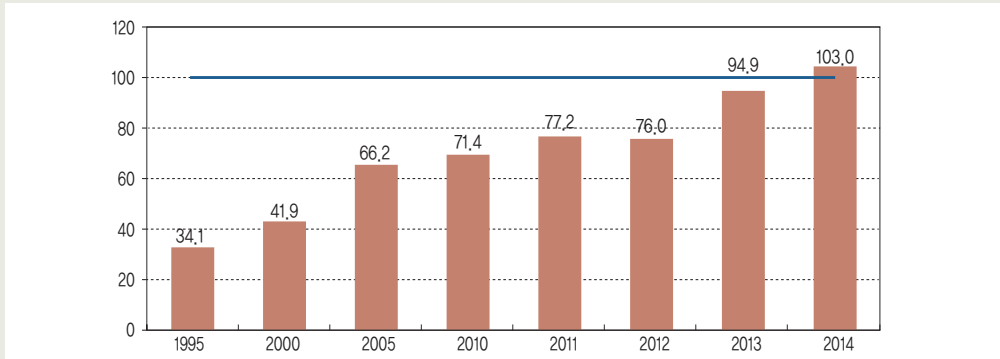
이슈

시장환율 기준 제조업 생산성, 최초로 일본 추월

▶ 시장환율 기준 제조업 취업자당 부가가치, 처음으로 일본 추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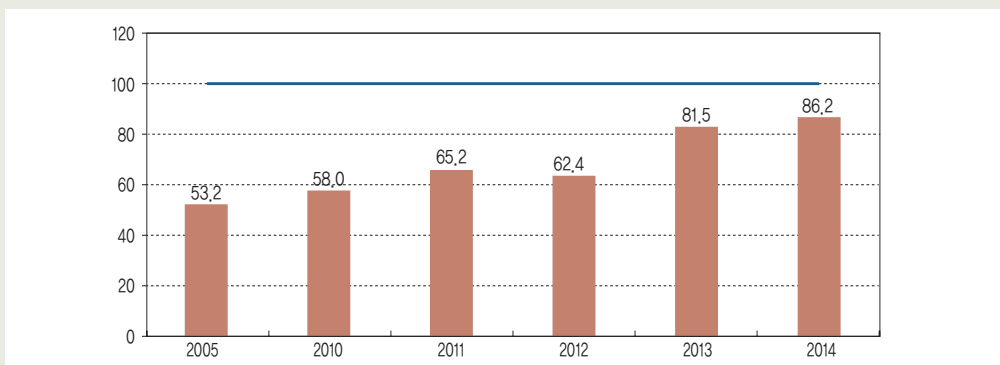
- 최근 발표된 일본의 2014년 GDP 통계에 의하면, 시장 환율(연간 평균) 기준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당 부가가치는 2014년에 사상 최초로 일본을 추월
 - 시장환율 기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의 34%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, 빠른 생산성 캐치업과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에 힘입어 2014년에는 103%로 일본 추월
 - 구매력 평가 환율(PPP) 기준으로는 2008년경에 이미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추정
 - * PPP 기준 한일 제조업 생산성 비교는 강두용(2015), “對日 캐치업 이후의 한국 제조업”, e-KIET 산업경제정보 619호 참조
 - * PPP 환율은 시장환율에 비해 변동성이 작고 구매력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산업별 PPP 환율 추정의 어려움으로 추정치의 정밀성 문제가 있어, 산업별 생산성 비교 시에는 입장일단이 있음.

▶ 시장환율 기준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 한일 비교(일본=100)



자료 : 일본 내각부, 국민경제계산; 한국은행, ECOS; 통계청, KOSIS

▶ 시장환율 기준 제조업 시간당 생산성 한일 비교(일본=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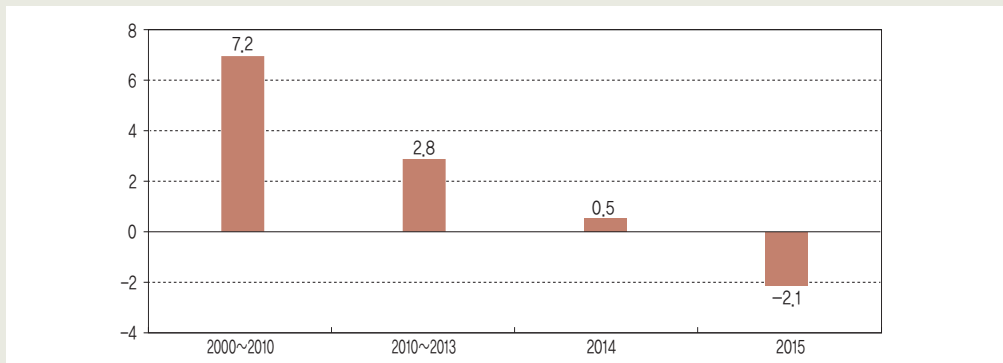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 내각부, 국민경제계산; 한국은행, ECOS; 통계청, KOSIS

- 다만 시간당 생산성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일본보다 훨씬 긴 관계로 아직도 한국 제조업이 일본의 86% 수준에 그침.
 -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며, 2014년 기준으로 일본보다도 약 20% 더 긴 편
 - 일본 대비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생산성은 2005년 53%에서 2014년 86%로 상승(국제비교가 가능한 제조업 노동시간 자료는 2004년부터 존재)

🔍 **우위 지속 여부, 상대적 기술발전 속도와 환율 추이 등이 변수**

- 2014년의 한일 간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 역전은 한국의 기술 캐치업뿐 아니라 엔화 약세에도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, 이 같은 추이의 지속 여부는 양국의 기술발전 속도와 환율 추이 등에 달려 있음.
 - 그동안 한국 제조업은 일본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 상승 추세를 보여 왔으나,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률도 매우 부진(상세한 관련 내용은 상기 e-KIET 산업경제정보 참조)

▶ **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**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 주 : 취업자당 실질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(%) 기준

- 2015년에도 엔 약세의 지속 등으로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당 생산성은 일본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, 국내 제조업 생산성 상승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, 2016년에는 한일 제조업 간 취업자당 생산성이 재역전될 가능성도 존재
- 취업자당 생산성의 우위 지속과 더불어 시간당 생산성의 대일 캐치업을 위해 기술 개발의 강화, 효율성 제고와 병행한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

▶ 작성 : 강두용(산업·통상분석실 선임연구위원, 044-287-3205)